

환멸과 기만의 시대, 그리고 환상문학

소비적인 문학 속에 환상문학 논의 본격화 ... 꼼꼼한 비평작업 기대

황순재

문학평론가

삶의 불확실성은 결핍에서 온다. 그래서 세월을 헤아리기 시작한 중년의 예민함처럼, 이 결핍의 증세는 남에게 숨길 수 없는 열병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결핍은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어쩌면 요즘 들어 시작된, 환상문학과 그 환상성에 대한 논의는 이 결핍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려는 지적 고뇌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즉, 결핍은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환상에 대한 문학적 관심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환상문학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탈출구라는 묘한 논리에 안착해버린 것 같은 의구심이 앞선다. 이것은 80년대의 심리적 부채감을 안고 있던 일부 젊은 작가들이 90년대 초반에 청산주의를 암암리에 조장한 것처럼, 90년대 후반의 모순과 병증을 '환상'이라는 용어로 편리하게 처방해버리려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다.

사실, 90년대 들면서부터 이같은 조짐은

역력히 나타났다. 일부 젊은 작가들의 표절 시비가 그것인데, 이 시비는 그들 중에서 영민한 자와 우둔한 자를 갈라놓았다. 영민한 자들은 표절이라는 그 위협스러운 장대 끝에서 도리어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벗어던지며 자기 주장을 단호하게 표현했다.

새로운 환상을 욕망하는 독자

그것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젊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태도였다. 그들에게 표절 시비는 변화를 위해서라면 거쳐야 하는 제의적 희생의 의미로까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의도한 대로, 그들의 체스추어는 새 시대의 기호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반면에 우둔한 자들은 남들이 억지로 벗긴 옷을 주위 입으려다 장대 끝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절망을 느껴야 했다. 이것은 문학이라는 원형전투장 속에서 9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상승과 몰락의 이중주를 그린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

최재의 책

외국 문호들의 대표작 선보여

<문지 스펙트럼> 외국문학선

외국문학 작품을 펴내지 않았던 문학과지성사에서 처음으로 '외국문학선'을 내놓았다. 1차분으로 선보인 4권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슈킨의 《스페이드의 여왕》, 로베르트 무질의 《세 여인》.

조이스 연구로 학위를 받은 홍덕선(성균관대 영문과) 교수가 번역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5개장으로 구성된 성장소설. 기존 사회의 인습적 속박을 거부하는 주인공의 자아확립 과정을 섬세하게 그렸다.

러시아 문호 푸슈킨의 작품(김희숙 옮김)은 19세기 초 페테르부르크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현대 독일문학의 기념비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무질의 초기작품인



《세 여인》(강명구 옮김)은 제목과 달리 주인공이 모두 남자. 현대인의 자아찾기를 독특한 기법과 문체로 다루고 있다.

문학과지성사/A6변형/각 230면 내외/각 4000원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전투장에 친숙한 무리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친숙함, 그것이 좋았다. 실망과 피로를 더해주기만 했던, 삶의 리얼리티는 이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 이들은 친숙함 속에 적당한 낯설음을 갖고 있었다.

예술가 이지함의 생애를 그린 《토정비결》이 이런 무리를 대표한다. 새로운 리얼리티를 갈망하던 독자들에게 이지함은 구국적 정신과 진솔한 인간미, 그리고 초인적 능력을 적당히 보여가면서, 현실 역사마저 몽환적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초토화시켜나갔다.

여기에 뒤질세라, 정약용도 전설 속에 파묻혀가던 자신의 역술을 양념처럼 정치 현실에 발라가면서 《소림 목민심서》를 통해 등장했다. 그러나 그 후속으로 나타난 많은 영웅들의 행렬은 그다지 눈에 띄지 못했다. 상품적 가치가 확인된 영웅도 복제의 빈도수에 따라 그 가치가 전락한다는, 상업출판

시장의 대원칙이 증명이 된 셈이다.

그러나 새로운 환상을 욕망하는 독자들은 적당한 상업출판을 너그럽게 허락한다. 너그러움이야말로 환상을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자본은 욕망과 교환된다. 방송국의 한 평범한 구성작가는 대통령의 딸과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이고, 한 재미과학자는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산화한다.

퇴마사들은 지금도 끈질기게 퇴마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배설구를 잃어버린 성기 하나는 우주를 향해 뻗쳐오르다 마침내 당당한 포르노그라피의 환상을 찾아냈다. 이 터져나갈 듯한 욕망의 감각대들을 감질나게 어루만져 주면서, 문학에서 환상성은 마침내 그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이다.

환상문학의 비평적 논의

일상에서의 탈주, 그것을 위해서 독자들은 진부할지라도 강력한 남성성을 갈망한다. 우리의 아버지이든, 천년을 기다린 사랑의 화

‘비전’이 자산이다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비전을 창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에 있는 매체가 바로 출판이다. 이 나라에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행해본 것의 결과를 통해 그 다음의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이란 축적된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설정하고 그것이 실현

되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미래를 조망하고 식별할 수 있는 창조력의 신념이다.

지금 우리에게 국가적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질문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

같은 관점에서 출판의 비전은 무엇인가. 누가 비전이라도 갖고 있기는 한가. 이 질문도 중요하다.

출판 근황은 현재 오늘 하루 지내기에 고달파서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출판이 지금처럼 하루 팔아 하루 사는 출판물들로 지속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비전을 창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에 있는 매체가 바로 출판이다. 출판 자신의 비전은 아직 설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국가와 사회 속에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일은 해야 한다.

물론 ‘비전’이란 말조차 유통되고 있지 않으니, ‘비전’을 이야기하는 책을 내기는 더 어려울 터이다. 그래도 이 책을 내는 것이 사회만이 아니라 출판 자신의 터전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야 할 것이다.

외줄기 좁은 골목에 있는 서점들의 세상에서 문방구 펜시상품 같은 인쇄물로 근근이 연명하는 것을 벗어나려면, 단호하게 큰 거리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 어떤 고통의 위험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또 사고도 날 것이다. 하지만 골목 속에 주저앉기보다는 나올 것이다.

비전을 세우고 변화의 대로로 나설 때다. 비전이라는 자산을 내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문체부가 <문화비전 200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6월 5일 문체부 건물에 <문화비전 2000>의 캐치프레이즈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를 전광판으로 만들어 점등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나는 정말 큰일났구나 하는 느낌을 여러번 가졌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비전’이란 말 자체가 의미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으며 별로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절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흐름은 ‘비전’을 자산이라고 말한다. 엘빈 토플러가 ‘정보’를 자산이라고 말했던 것이 제3의 물결론이었다면, ‘비전’은 제4물결의 자산이다.

제프리 제임스가 쓴 <전자산업 엘리트들의 경영지혜>라는 책 속에 등장하는 첨단기업 최고 경영책임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 역시 ‘비전’이다. 비전이 있고 비전을 공유하는 기업만이 성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빌 게이츠도 이렇게 말한다. “1974년 하버드 대학시절 폴 앨런과 함께 최초의 마이크로 컴퓨터인 <MITS 알테어>용 베이직을 개발했을 때, 우리는 컴퓨터가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모든 사무실·가정의 책상마다 놓이게 될것이란 확신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혁명일 것임을 감지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쫓아 하버드를 떠나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분명한 비전과 이 비전을 공유하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최고경영자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거나 또는 아예 이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21세기를 운영해야 할 10명도 넘는 대선주자들마저 비전을 말하거나 내놓은 경우가 아직은 없다.

다시 한번 물어서 정말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과거에서부터 이제까지 알고

다른 하나는 영미권의 환상문학론을 소개하는 차원이다. 이 논의는 주로 과학소설, 괴기소설, 추리소설 등의 대중소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등 서구인의 마음을 전율케 해온 인물들이 다시 출현한 것이다.

물론 이 논의는 타자성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변장르였던 이들 문학들을 재조명하고 당대적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문학생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도 계승

그러나 이 논의 이전에 이미 PC통신을 통해 적지 않은 괴물과 흡혈귀 들을 보아왔다. 늦게 잡아서 <퇴마록>이 하이텔의 전자게시판에 연재된 때부터라고 보더라도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다. 논의가 대부분 외국문학이론을 소개·정리하기에 급급하다는 점은 시대착오적 발상이거나, 아니면 문화현실을 잘못 파악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더구나 환상문학은 우리의 문학사 속에서 면면히 계승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단 한 편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현대문학에서도 최인훈·박상룡·이재하·윤희명 등의 작가들이 존재하는데도 이들은 예외적 작가로서 논의로 쳐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아마 예외적이지 않은 작가는 대중적 사랑을 받는 작가를 지칭하는 듯한데, 이런 편견에 찬 태도에서 대중문학론의 뉘새를 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환상문학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문학의 지평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인식을 열어가기 위한 것이기보다 도리어 허위적 삶을 합리화하고 그 삶 속의 교묘한 지배책략을 고무·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비평가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그 책략을 모른 채 하거나 혹은 그것에 이용당한다면, 비평은 일들로 무성한 표층과는 달리 깊은 심층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환상문학이 구체적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것이 문학지평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인식을 열어나가기보다

도리어 허위적 삶을 합리화하고

삶 속의 교묘한 지배책략을

고무하지 않는지 비평가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신이든, 이들을 통해서 몽환적이고 통속적인 현실을 가로지르는 삶을 욕망한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대리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강렬한 환상의 기다리기도 해 본다. 그러나 독자가 자신의 결핍을 뒤돌아보기에는 너무 속도감 있는 현실이다.

어느새 <아버지>와 닮은 제목의 소설이 무려 삼십 여 종류나 출판되어 있지만, 독자는 이미 새로운 남성성에 매료되어가고 있다. 이 매료에 힘입어 <영원한 제국>에서 못다 이룬 절대 영웅의 꿈은, 박정희를 모델로 한 <인간의 길>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래도 강한 남성성, 이 철지난 복고풍은 <선택>에서 절정을 이룬다.

환상문학에 대한 비평적 논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 아래 놓여 있다. 이 너무나도 환상적인, 문학의 소비, 이렇게 소비되는 문학이 대개 몽환적이고 보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근의 환상문학 논의는 서로 다른 두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나는 중남미권의 환상문학이론을 소개하는 차원이다. 이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수용과 그 맥을 같이한다. 환상문학 논의는 현실과 환상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려는 시도와 맞물린, 탈중심화된 논리 속에 포섭된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논의와도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때 문학의 환상성은 권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현실 질서에 대항함으로써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항담론으로서 성격을 갖는다.